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억울한 죽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김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 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나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꺾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개역, 사도행전 4:32-5:11]

성

경을 읽을 때 납득이 잘 안 되거나 이상한 점들이 더러 나옵니다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한 때는 저도 납득이 되지 않았던, 어찌면 너무하지 않느냐고 느꼈던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저 아멘 하고 지나가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신대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제가 앓던 큰 밥상 위에 조그마한 메모지가 하나 있어요. “아빠는 못됐다!!!” 또 그 밑에 “아빠는 착하다???” 못됐다 다음에는 느낌표 세 개가 있는데 착하다에는 물음표 세 개가 있는 게 아마 못됐다든 거죠. 그걸 보고 화를 내면 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요. 어린아이가 쓴 글은 그냥 씩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쓴 글은 한 번 읽고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이 쓴 글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돼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을까?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애하는 사람들의 글 있죠? 여자가 No 하면 그걸 No로 받지 말고 Yes로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No인지 아니면 Yes를 No라고 하는지 판별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은 한 번쯤은 다시 되짚어 보고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IQ가 얼마쯤 되신 분이 쓰셨나요? 한번 읽고 치워도 되는 겁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썼던 책입니다. 다 밝혀졌습니까? 성경은 지금도 들여다 보면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와 닿습니다. 성경을 쓰신 분의 IQ는? 글썽요, 몇 백이 될지 몇 천이 될지 알 수 없는 분이 쓰신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거든 혼자서 고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든지 얘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목사님께 여쭙어 보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본문은 헌금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헌금을 많이 하라는 본문도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한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베드로야 영의정 자리 따 놓은 것이니까 탐 못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되었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사도행전 1:7)’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 한번에 삼천명도 돌아오고 오천명도 돌아옵니다. 삼천, 오천, 그 다음은? 셀 수 없는 무리더라고 합니다. 오천까지는 헤아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은 못 헤아렸나 봅니다. 갑자기 완전히 변해 버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이루어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 놓고 서로 공유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랐던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 바로 이거다!” 마르크스가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일하고 서로 같이 나누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나쁜 거예요? 의도는 참 좋죠. 그랬던 공산주의가 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까? 성경을 보고 만들었는데 왜 실패를 하나요? 하나를 놓쳤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불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갔으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깡그리 배격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 불려고 했으니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름다운 모습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화가 됩니까?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부모가 닥쳤습니다. 복입니까 화입니까? 평소에 정돈 잘 해 놓고 깔끔하게 사시는 분에게는 느닷없이 닥친 시부모님이 복입니다. “아, 우리 며느리 역시 잘 해!” 이렇게 되지요? 집안이 지저분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양말도 아무데나 쿡쿡 찌셔놨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희미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의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인심 쓰듯이 교회에 가주는 류의 성도는 없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 복을 받는 사람은 크게 받고 벌을 받는 사람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간에 받았다 하면 무조건 큰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 한 것이 있기는 있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제 평생에 집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일이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놀랄 것 같아요. 언젠가 그 놈이 “저건 내 거다!”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모교회에서 교회당을 지을 때 어떤 권사님이 집을 팔아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고 두고 그 분은 존경을 받아요. 그것 하나만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더라도, 전세금 정도는 떼어 놓고 헌금을 하더라도 “당신 왜 집을 팔아서 떼어 놓고 헌금을 하나? 다 내어놓지!” 이럴 사람 없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팔아 가지고 얼마를 바쳤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감추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액수를 왜 희미하게 해 놓았을까요? 금액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를 바쳤든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쉬운 분에게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지난 설날에 아이들이 세뱃돈 받은 것에 대해서 십일조를 했는지 나중에 물어 보니까 했다고 그래요. 얼마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어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로서는 들어온 것보다 헌금해야 되는 돈이 더 크게 보였는지 모르죠. 십일조라는 것이 쉬운 사람에게서는 쉽고 자연스럽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년에 헌금하는 것 자세히 알고는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에 그렇게 갔다 바치고 뭘 먹고 사냐?” 하고 물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십일조 하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재산의 절반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런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와 죽겠고 덜덜 떨리고 아, 꼭 해야 되나? 싶으면 하지 마세요. 헌금하는 게 절대로 우선이 아닙니다.

기꺼이 드리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헌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출석하십시오. 예배만 부지런히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내키면 성경공부 시간에 아니면 평신도 신학교에 등록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진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하셔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남들 하나씩 해 봐야 되겠나?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분에서 약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집 판 돈인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나 조금 남기고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 놓고 감추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기쁨으로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 이 부부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 있긴 있다 싶어요.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하지요? 이 부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생각이 똑같았다는 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춘천으로 통근하던 어느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안되어 남편이 그 자리에 와서 죽어 버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슬픔을 못 이겨서 거기 가서 죽었죠. 그게 신문이 났거든요. 가령 여러분의 부인이 그 기사를 보면 “남은 아이들은 어찌라고?” 하면서 그 남자 욕을 좀 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한다면 옆에 있던 남편이 뭐라 해야죠? “그래 맞다!” 하면 안돼요.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말로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그랬겠냐?”라고 해야 됩니다. 괜히 “그래 맞다!”고 했다가는 대번에 도끼질을 뜨고 “그럼 당신은 내 죽고 나면 혼자 살래?” 할지 모릅니다.

부부는 닮아야 하고 철저히 사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닮아야 할 것은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신앙은 똑같이 닮아야 합니다. 음식도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할 것은 철저히 닮고, 닮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안 닮아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닮아야 할 걸 똑같이 닮은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죠. 부부가 둘 다 남에게 있는대로 퍼주는 것 이거 닮는 게 좋습니까 안 닮는 게 좋습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닮을 것은 철저히 닮고 안 닮을 것은 철저히 안 닮아야 하는데 이 부부는 나쁜 쪽으로 닮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이 가정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닮은 것도 잘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찾아봅시다.

3절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합니다. 4절에도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너희가 어찌 함께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같은 말이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팔아 가지고 상당 부분을 들고 왔는데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뭘입니까? 그 행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때를 잘못 택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하더라도 어디가서 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가서 거짓말을 했더라면 좀 괜찮은데 지금 어디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크다는 얘깁니다. 사람도 면전에서 욕하는 것과 안 보는 데서 하는 욕은 좀 다르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저녁에 여관 바깥 한 모퉁이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윗쪽 창가에서 애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마디가 기억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욕을 그리 듣는 편이 아닌데 그 녀석이 무슨 심사인지 “홍순관이 그 새끼 장가 갔다대?” 하는 거죠. 애들 말투가 평소에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쩍니까 웃고 말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는 알아요. 마침 그 이튿날 그 근처에서 그 놈을 만났어요. “야, 어제 저녁 몇시쯤에 내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 놈이 손이야 발이야 비는 겁니

다. 짐작게 타일렸죠. “선생님이 있든 없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없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끝나는 거죠. 애들 말은 거칠어요. 거칠긴 한데 안 보이는 데서 하는 말까지 시비를 따질 순 없죠. 면전에서 그랬다가는 작살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라는 애깁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간이 그렇죠? 전쟁을 치르고 점령한 곳에서 탈취물을 꺼내어 가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뽕뽕이를 잘 들어서 무너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뽕뽕이를 도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저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그래서 한꺼번에 담 위로 올라갔더니 그 무게를 못 이겨 무너졌다? 어느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참 성경 해석 잘 한다 싶어요. 인간적으로 말이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범한 범죄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 옛날 이야기라서 참 다행이죠?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초신자가 왔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안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 들이고 교회에 받을 들여놓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때가 그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앞에서 그를 실족케 할 만한 일을 했다면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상입니다. 아간의 범죄보다 더 큰 범죄라는 겁니다.

혹시 싸울 일이 있고 힘든 일이, 한판 붙어야 될 일이 있거든 나가서 싸우십시오. 직장에서 들어 었든 지...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적어도 초신자 앞에서, 아니 자라나는 어린아이 앞에서, 신앙이 들어가고 자라가는 그 앞에서 실족케 할 일은 죽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뿔들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는 것은 그걸 목에 걸고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자는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나타났을 그 앞에서 그를 실족케 할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애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그를 구원하기로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그 앞에서 초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밖에 나가서는 드물긴 해도 어쩔 수 없으면 싸우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얼굴 한번 찡그러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누구 보니까 교회가 싫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서 교회 안에서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밝은 얼굴로 지냈습니다. 집에서 짜증내고 화가 난 일이 있어도 교회 올 때는 표시 안 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리고성의 아간, 효자제일 교회의 나,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안됩니다. 정말 죽을 각오 아니면 초신자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통이 터져 열심히 싸우다가도 초신자가 온다 하면 화생방 싸이렌이 울린 것처럼 즉시 중지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품잡고 있다가 그 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헌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교회로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하나 하나에 관심이 있지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재산 목록이 있다면 그 항목 중에 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부었다고 해도 하나님 장부에는 돈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항목도 없는 돈을 아무리 갖다 부었다고 해도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실족케 된다면 한 영혼을 죽이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부부가 이렇게 된 원인을 한 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비극적인 끝을 맺게 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바나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던 것이 바나바만 한 일이 아니고 그 앞의 내용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체면 때문에 남들이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교회 쫓아와 보니까 헌금 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헌금 주머니가 들고 있는데 헌금할 돈이 없다고 보고만 있으면 남들 보기가 민망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수든 어쩔든 다가오는 헌금 주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치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체면 때문에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만 그렇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기도 열심히 하고 갈려고 보니까 중학생이 기도를 하고 있던 말이에요. 중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어떻게 먼저 가? 좀 더 기도를 하고 가려고 하니 중학생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몇번 이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생이 자고 있었어요. 헌금이든 기도든 전도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헌금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안되더라구요. 사람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해도 제대로 안되더라구요.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되어서 헌금할 안쓰기로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교회 제도든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는 참으로 신중하게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한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되죠? 정말 천하보다 귀해요? 십만원을 들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쓰시겠습니까? 백만원을 써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쓰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각오로 삽시다. 돈, 돈, 돈만 하며 살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라면 ‘쓰면서 산다’라는 각오로 삽시다.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쓰리는 것은 아닙니다.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아껴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줄이고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쓸 때 써야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 접어놓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해 보십시오.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한 번 나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접을 수 있다면 접으십시오. 자존심을 접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쩌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순교자적인 각오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양보해 가면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적어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가 되면 자리를 후배에게 물려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배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형편이 달라지면 다시 내가 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 아래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자리가 제일 많이 바뀌는 곳이 성가대 지휘자 같습니다. 일년이 채 안된 사이에 지휘자가 벌써 세 명째지요. 아마 우리 이병희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할려고 하는데 혹시 지휘 잘하는 사람이 오면 자리 비켜 주겠습니까? 비켜준데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잘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깨끗하게 물러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자세이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귀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자세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돈도 쓸 때는 쓰고 자존심을 구겨야 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존심을 구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한 마디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이 맺혔던 사람이지요. 그 많던 한이 여기 와서 몇 달만에 깨끗이 다 풀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신대원에 설교를 특별히 구수하게 잘 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분이 설교 시간에 서울대학 나와서 신학교에 간 이유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밖에 못하나?” 이래서 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만한 분이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쫄해 오는 것 있죠. 저는 설교를 잘 하겠다고 간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을 봐오면서 난 저런 짓은 안 할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면 변질될 시간도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알아 두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다들 고참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고참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안된 분들입니다. 저 분은 교회 되게 오래 다녔나 싶어도 자기나 내나 비슷해요. 제가 여기 온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일년도 안되었습니다. 일년도 안되었지만 제 뒤에 꼭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분들 다들 오래 되었는가 싶었는데 겨우 며칠, 한달, 두달 수복히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라고요? 초신자 아닙니다. 여기와서 초신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가슴 속 한쪽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죠? 얼마 안되어 그런 것들이 깨끗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만큼은 되지 못하겠지만 초대교회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는 이런 때 혹시 실수해서, 다른 실수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실족케 할까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아래 오셨다고 “내가 새신자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새신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새신자는 적습니다. 새신자가 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에 입문하려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런 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로 여기 모였습니다. 모두가 나무에 비하면 뿌리입니다. 뿌리는 뿌린 데 튼튼한 뿌리도 있고 조금 상한 뿌리도 있어요. 이 상한 뿌리는 이내 치유되어서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땅 위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도 곧 줄기가 돋고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접촉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씩 싹이 트고 줄기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성도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초대교회 정도는 안되더라도 그 흉내는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펄펄 뛰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